

2022 SKKU Interaction English Studies Winter School

영어영문학 융합 연구와 글로벌 사회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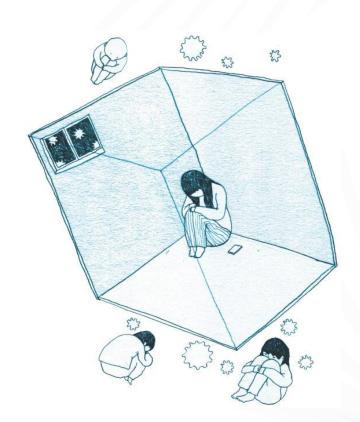
(Interdisciplinary English Studies and Issues of the Global Society)

Zoom Webinar









Minicourse: Language and Law

이해윤 (한국외대 언어인지과학과)

Day 1: 법률언어 (Legal language)

1/3 (Mon) 11:00 ~ 12:30

Meeting room ID: 947 8291 5327 Password: 7600246

Day 2: 법해석학 & 법정신문

(Legal hermeneutics & courtroom examinations)

1/5 (Wed) 11:00 ~ 12:30

Meeting room ID: 938 4558 4776 Password: 7600246

Day 3: 언어범죄 (Language-related crimes)

1/10 (Mon) 11:00 ~ 12:30

Meeting room ID: 981 4533 9411 Password: 7600246

Day 4: 상표언어학 & 저자판별

(Trademark linguistics & authorship attribution)

1/12 (Wed) 11:00 ~ 12:30

Meeting room ID: 923 7957 8964 Password: 7600246

죽음학 강연 (Lecture on Thanatology (Death Studies))

유은실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아산병원 병리학과 교수)

죽음,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할 것인가?

(How should we view and prepare for death?)

1/17 (Mon) 10:30 ~ 12:00

Meeting room ID: 993 2992 9404 Password: 7600246

해외석학 초청 건강학/의료인문학 강연 (Lecture on Health Studies)

(Lecture on Health Studies)

Nancy Tomes (Department of History, Stony Brook University)

Social distancing: Insights from a critical health studies perspective

1/19 (Wed) 10:00 ~ 12:00

Meeting room ID: 946 3658 6731 Password: 7600246

사회활동가 초청 환경인문학 강연 (Lecture on Environmental Humanities)

한윤정 (전환연구자/작가)

생태전환과 그린 미디어 (Ecological transition and green media)

1/27 (Thu) 10:30 ~ 12:00

Meeting room ID: 937 2795 0182 Password: 7600246

Contact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ungkyunkwan University) https://skb.skku.edu/bk21english/index.do | E-mail english@skku.edu | Tel 02-760-0246

Hosted by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I 시대의 인터랙션 영어영문학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s BK 21 Education/Research Program for Fostering Interaction English Studies Specialists, Sungkyunkwan University)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영어영문학과 4단계 BK 21 교육연구단은 2021년 Summer School과 Winter School에 이어 2022년 1월 『영어영문학 융합 연구와 글로벌 사회 문제 (Interdisciplinary English Studies and Issues of the Global Society)』라는 주제로 2022 Interaction English Studies Winter School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법 언어학 Minicourse, 의학자, 해외 석학과 사회활동가 초청 의료인문학 및 환경인문학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 팬데믹, 불평등이라는 작금의 전 지구적 혼란과 변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두되는 존엄한 죽음 및 언어와 법 등 주요 글로벌 사회 문제들을 점검하며, 과거를 돌아 보고, 나아가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학문의 관점에서 창의적인 해결점과 실천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펼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위기 상황을 넘어 서는 새로운 전환과 인문학적 상상력 및 실천의 시대적 가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단계 BK 21 교육연구단

Minicourse: Language and Law

Date	Time	Instructor
1/3 (Mon), 1/5 (Wed) 1/10 (Mon), 1/12 (Wed)	11:00 ~12:30	이해윤 (한국외대 언어인지과학과)

Overview

본 강의에서는 법과 언어, 즉 법언어학(forensic linguistics)의 대표적인 주제들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언어학적 설명 내지 분석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법률언어, 법정신문, 언어범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언어학적 설명/분석과 직접 관련되는 주제들을 강사의 저서 및 최근 관련 논문들을 토대로 하여 살펴본다. 이로써 법언어학이라는 응용 영역에서 가능한 연구 주제들 및 이들에 대한 분석 방법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 영역에서 나름의 연구 주제를 찾는데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Schedule

D.	•		
Date	Topic		
Day 1 1/3 (Mon)	주제: 법률 언어 (legal language) 내용: 법률 문서의 분류와 구조 법률 언어의 어휘적/구문적 특징들, 법령정비사업 '쉬운 언어 ' 의 관점에서 제품 경고문 분석		
	Meeting room ID: 947 8291 5327 Password: 7600246		
Day 2 1/5 (Wed)	주제: 법해석학 & 법정신문 (Legal hermeneutics & courtroom examinations) 내용: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언어의 중의성/모호성 법정 신문: 법조인의 질문(전제), 피고인/증인의 답변(함축) 위증죄 분석		
	Meeting room ID: 938 4558 4776 Password: 7600246		
Day 3 1/10 (Mon)	주제: 언어 범죄 (language-related crimes) 내용: 언어 범죄와 화행이론 사례 분석: 협박죄, 교사범, 명예훼손죄/모욕죄		
	Meeting room ID: 981 4533 9411 Password: 7600246		
Day 4 1/12 (Wed)	주제: 상표 언어학 & 저자 판별 (Trademark linguistics & authorship attribution) 내용: 상표 언어학: 언어학의 관점에서 상표의 강도 분류, 유사도 측정 저자 판별: 사회언어학적 관찰법, 문체론적 분석, 전산적 방법		
	Meeting room ID: 923 7957 8964 Password: 7600246		

References

이해윤 (2020), 법언어학의 이해. 역락.

Tiersma, P. & L. Solan eds. (2012),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and Law*. Oxford University Press. Coulthard, M. et al. eds. (2020), *The Routledge Handbook of Forensic Linguistics*. Routledge.

Lecture on Thanalogy (Death Studies)

죽음,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할 것인가? (How should we view and prepare for death?)

Date	Time	Speaker
1/17 (Mon)	10:30 ~12:00	유은실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아산병원 병리과 교수)

Meeting room ID: 993 2992 9404 Password: 7600246

Overview

죽음은 우리 삶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주는 거울과 같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불편해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당하지 말고 담담하고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존엄한 죽음을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오랜 기간 아산병원 병리과 의사로 근무하며 의료 현장에서 죽음을 다루어 온 유은실 박사에게서 죽음의 구체적 모습(생물학적, 의학적), 죽음에 대한 태도(심리적, 종교적, 심리적, 철학적), 죽음 맞이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죽음 문화와 교육, 연명의료결정법 등) 등 다양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Lecture on Health Studies by Distinguished International Scholar

Social distancing: Insights from a critical health studies perspective

Date	Time	Speaker
1/19 (Wed)	10:00 ~12:00	Nancy Tomes (Department of History, Stony Brook University)

Meeting room ID: 946 3658 6731 Password: 7600246

Overview (다음 페이지)

Overview

Social distancing: Insights from a critical health studies perspective

Nancy Tomes (Department of History, Stony Brook University)

This talk will bring a historical perspective to the concept of "social distancing" as a public health practice during the global COVID-19 pandemic. As I will suggest, the idea that epidemics could successfully be managed through voluntary isolation, avoidance of public spaces, and exacting personal hygiene fell out of favor in "Western" public health after the World War 1 influenza pandemic. From the 1920s onward, public health leaders instead sought to improve surveillance, contact tracing, and after the 1940s, vaccine and drug development as the best means to control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s. Teaching the need for exacting personal and communal cleanliness—what in my 1998 book I refer to as the "gospel of germs"—ceased to be an important aspect of public health work. The AIDS pandemic of the 1980s revived attention to public health education and the need for community engagement in responding to a deadly infectious disease. But as the potential for "new" emerging diseases became a national security concern in the late 20th c., planning continued to privilege the infrastructure of disease surveillance and the importance of vaccine development. So called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what we now refer to as social distancing measures-- were expected to have a relatively brief role in any new pandemic; the assumption was that surveillance would prevent outbreaks from going global. In the unlikely chance that this surveillance failed, and a disease spread to many countries, social distancing measures would only be needed briefly, to buy time for vaccine development. The COVID-19 pandemic has revealed the weaknesses in these assumptions, including the inattention to the complexities of social distancing in today's networked and polarized world. In my talk, I will put these problems in historical perspective and offer some reflections on what new ideas need to emerge from the COVID experience.

I also discuss our efforts at Stony Brook to develop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health that includes both the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critical health studies") and that contests the tendency to approach cris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from a reductionist biomedical paradigm.

Lecture on Environmental Humanities

생태전환과 그린 미디어 (Ecological transition and green media)

Date	Time	Speaker
1/27 (Thu)	10:30 ~12:00	한윤정 (전환연구자/작가)

Meeting room ID: 937 2795 0182 Password: 7600246

Overview

2022년은 최초의 UN환경회의인 스톡홀름 회의가 열리고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기후위기, 팬데믹, 불평등이라는 21세기의 복합적 위기를 완화하는 방법은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생태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의 문제를 가져온 '산업문명의 가치와 철학'을 재고하는 것, 둘째는 바람직한 미래로서의 '생태문명이라는 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을 통해 생각과 생활을 바꾸고, 근본적으로는 생산(경제)을 바꿀 때 생태전환의 가능성이 열린다. 스토리, 내러티브, 미디어는 그 출발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성 가치 체계에 균열을 내는 녹색언어를 통해 녹색사회를 꿈꾸는 대안미디어로서 그린 미디어의 가능성과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Invited Speakers Bio

이해윤: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뮌헨대학교 이론 언어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초빙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 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의미화용론, 법 언어학 및 전산언어학이다. 저역서로 『법언어학의 이해』(2020), 『지식망』(2018, 공저), 『화용론』 (2009, 역서), 『언어정보처리를 위한 PROLOG』(2008, 공저), 『Ellipsen in Satzkoordinationen』(1998) 이 있다.

유은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병리과 전문의가 된 후 1989년부터 2020년 까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명예교수이다. 의사이자 번역가로 『우아한 노년』, 『유전자시대의 적들』, 『천재들의 뇌』 『통증에 귀기울이기』, 『진화의학의 이해』 등의 과학도서를 번역하였고, 병리의사로서의 삶과 병행해서 2006년부터는 도서출판 허원미디어를 운영하면서 2015년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를 공동 집필하였다. 울산의대 재직 중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존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위해 죽음학 관련 강의를 개설하였으며, 울산대 교양학부에도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할까 '라는 과목을 개설해 강의하고 있다. 최근 『삶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역서를 출간하며 우리 사회에 존엄한 죽음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Nancy Tomes is SUNY Distinguished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History at Stony Brook University. She is the author of four books: *A Generous Confidence: Thomas Story Kirkbride and the Art of Asylum Keeping* (1984; reissued 2015); *Madness in America: Cultural and Medical Perceptions of Mental Illness Before 1914*, with Lynn Gamwell (1995); *The Gospel of Germs: Men, Women and the Microbe in American Life* (1998), winner of awards from both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Medicine and the History of Science Society; and *Remaking the American Patient: How Madison Avenue and Modern Medicine Turned Patients into Consumers* (2016), winner of the 2017 Bancroft Prize. In 2011, she received 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s Arthur Viseltear Award for her "distinguished body of scholarship in the history of public health." She is now working on a history of the modern "infodemic."

한윤정: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부터 2016년까지 경향신문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기자와 문화부장으로 일하며 관훈클럽 임원과 한국 여기자클럽 이사를 역임하였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 협동과정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과정사상연구소 한국생태문명 프로젝트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생태문명 '이란 키워드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현재 생태적 전환의 방법을 모색하는 다양한 저술활동과 국제 학술 교류 활동을 수행하면서 전환연구자와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다.